

상고·중고중국어 시기 조동사 ‘欲’의 변천*

윤 순 일**

<목 차>

1. 서론
2. 동사 ‘欲’의 기원과 발전
3. 조동사 ‘欲’의 성립과 분화
4. 양상과 미래시제의 관계
5. 미래시제표지 ‘欲’의 성립과 분화
6. 결론

1. 서론

시간(time)에 대한 인식은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지 능력 가운데 하나이다. 시간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의미 범주로 존재하여 인류의 대부분의 언어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특정한 형식들을 갖추고 있다. 다수의 언어에서 시간은 굴절적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종래의 전통적인 연구에서는 형식과 의미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종종 시간에 대한 논의를 시제(tense)라는 문법범주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주로 형태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시간은 참조시간을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 세 부분으로 나

* 이 논문은 2020년 8월 21일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경상대학교 해외지역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chunyi@daum.net)

된다. 이 가운데 미래는 과거나 현재에 비하여 매우 현저한 불확실성을 갖는다.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미래에 발생할 사건은 화자나 청자 모두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즉 미래시제 표지들에는 미래라는 시간 정보 이외에도 화자의 주관성이 종종 개입되기도 한다. 그 결과로 미래시제 표지는 공시 평면에서 중국어 ‘要’, ‘會’, 영어 ‘will’, ‘shall’ 등과 같이 본래 의도, 예측, 인식 등과 같은 화자의 주관성을 나타내는 표현들과 형식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각이 나타내는 ‘미래’의 의미도 주관적이고 모호한 경향을 보인다.

Bybee et al.(1994), Heine et al.(2002) 등의 연구에 의하면 범언어적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수단은 형태, 접사, 조동사, 부사, 시간명사 등 매우 다양한 형식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시 평면의 다양한 형식들을 통시적 관점에서 그 어원을 추적하면 단지 몇 개의 의미 유형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사실은 미래시제 표지들의 탄생과 변천과정에 인류 언어 공통의 보편적 특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어의 미래시제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최근 들어 매우 활발해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 ‘要’나 ‘將’과 같이 현대중국어에서 상용되는 형식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고대중국어의 대상으로 미래와 관련된 표현을 분석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또한 의도, 예측, 인식 등 미래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정의와 분류가 학자마다 매우 상이한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본고는 미래시제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고 문헌 분석을 통하여 상고·중고 중국어 시기 조동사 및 미래시제 표지로 쓰인 ‘欲’의 기원과 변천과정을 재구하고 ‘欲’의 분화 과정에 내재하는 범언어적 보편성과 ‘欲’에 보이는 개별적 특성들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2. 동사 ‘欲’의 기원과 발전

‘欲’의 본의는 인간의 욕심과 관련되어 있다. 許慎의 《說文解字》은 ‘欲’의 의미를 ‘탐욕’으로 풀이하였다(“欲, 貪欲也.”). 《漢語大詞典》도 본의와 관련된 의미항으로 ‘탐욕, 정욕(貪欲, 情欲)’, ‘욕망, 바람(欲望, 願望)’ 등의 추상적 개념들을 제시하였다. 盧卓君(1996)은 (1)과 같은 ‘欲’의 본의를 ‘실현되기를 바라는 모종의 요구(尙待實現的某種要求)’라는 일종의 심리상태로 해석하였는데, 그 내부에는 이미 ‘얻기를 바라다(想要得到)’, ‘원하다(要)’, ‘희망하다(希望)’ 등과 같은 심리 활동들이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2)에서 볼 수 있듯이 ‘욕망’, ‘바람’ 등 ‘欲’의 본의는 비록 명사적 개념에 해당되지만 ‘바라다’, ‘원하다’와 같은 동작이나 행위와 관련된 개념들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1) 匪棘其欲, 迺迨來孝.(《詩·大雅》)

그 욕심으로 급하게 이루지 않고, 선인의 뜻 따라 효를 오게 하였다.

(2) 上下同欲者勝.(《孫子·謀攻》)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바라는 것이 같으면 승리한다.

黃天樹(2008)에 의하면 ‘欲’은 비교적 이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서주시기의 금문에서 이미 동사로 사용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¹⁾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欲’의 뒤에 체언성 목적어를 두고 어떠한 사물을 ‘얻기를 바라다(想要得到)’를 나타내는 것이다. 목적어는 동작주가 얻기를 바라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킨다. ‘欲’의 본의인 ‘욕망’ 자체에 이미 사물을 획득하기를 바라는 동작주의

1) 黃天樹(2008)는 ‘欲’은 갑골문에서는 조동사로 쓰이지 않다가 서주금문에서 처음 ‘바라다’, ‘희망하다’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물론 黃天樹는 이러한 ‘欲’에 ‘조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고는 [의지], [의무] 따위의 양상의미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일반동사로 처리한다. 전세문헌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의 용례로는 《尚書·泰誓》의 “民之所欲, 天必從之.(백성이 바라는 것은 하늘이 반드시 따른다.)”가 있다.

심리상태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욕망’에서 ‘바라다’로의 확장은 매우 자연스러운 함축(implicature)과 추론(inference)의 결과라 할 수 있다. ‘欲’의 목적어는 (3)과 같이 구체적인 사물명사가 될 수도 있으며, (4)와 같이 특정 사물이나 사건을 지칭하는 지시대사일 수도 있다. 또한 (5)와 같이 목적어는 생략되었지만 전치된 ‘所’와 함께 명사성 성분을 구성할 수도 한다.

- (3) 吾不可以欲城而邇姦。(《左傳·昭公十五年》)
나는 성을 바라는 것 때문에 간사한 이를 가까이 할 수는 없다.
- (4) 姜氏欲之，焉避害?(《左傳·隱公元年》)
어머니 강씨가 그것을 원하니 어찌 피할 수가 있겠소?
- (5) 孟子曰：“魚，我所欲也。熊掌，亦我所欲也。”(《孟子·告子上》)
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는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곰발바닥도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동사 ‘欲’의 목적어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낼 수도 있다. (6)의 ‘이익(利)’이나 (7)의 ‘어짊(仁)’은 (3)의 ‘성(城)’이나 (4)의 ‘강씨의 요구’, (5)의 ‘물고기’, ‘곰 발바닥’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다. 물론 (6)-(7)의 ‘欲’도 그 핵심 의미를 ‘바라다’, ‘원하다’로 개괄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목적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欲’의 의미를 재해석한다면, ‘이익(利)’이나 ‘어짊(仁)’은 ‘얻기를 바라는(想要得到)’ 대상이라기보다는 ‘도달하기를 바라는(想要到達)’ 일종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즉 함께 출현하는 체언 목적어의 추상화로 인하여 동사 ‘欲’의 의미 또한 다소 추상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 (6) 畏患而不避義死，欲利而不爲所非?(《荀子·不苟》)
환난을 두려워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피하지 않고, 이익은 바라지만 그릇된 것은 하지 않는다.
- (7) 子曰：“仁遠乎哉？我欲仁，斯仁至矣。”(《論語·述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짊(仁)이 멀리 있는가? 내가 어짊을 바라면 이에 어짊이 온다.

이와 같은 결합 성분의 다양화는 의미 분화 과정에 있어 자주 보이는 일종의 일반화(generalization)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화는 어휘소가 본래 갖고 있던 의미상의 특수성은 감소하고 적용 범위는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동사 ‘欲’의 기능은 보다 발전되어 용언 목적어를 취하기도 한다. 목적어 위치에 (8), (9)와 같은 동사성 또는 형용사성 성분이 출현하여 ‘NP+V_欲+VP’ 구조를 구성하기도 하고, (10)과 같이 주술구조가 출현하여 ‘NP+V_欲+NP+VP’ 구조를 구성하기도 한다.

(8) 飢而欲食, 寒而欲煖, 勞而欲息.(《荀子·榮辱》)

배가 고프면 먹기를 바라고, 추우면 따뜻함을 바라고, 피곤하면 쉬기를 바란다.

(9) 心欲小, 志欲大.(《文子·征明》)

마음은 섬세하기를 바라고 뜻은 원대하기를 바란다.

(10) 父母豈欲吾貧哉?(《莊子·大宗師》)

부모님께서 어찌 내가 가난하기를 바라겠는가?

위의 예문들만 보면 동사 ‘欲’이 나타내는 의미는 체언 목적어를 취하는 ‘欲’의 기본 의미인 ‘바라다’, ‘요구하다’와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바람과 요구의 대상인 목적어가 복잡해지고 추상화됨에 따라 ‘欲’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의미 역시 ‘언기를 바라다’에서 ‘(특정 상황을) 이루기를 바라다’로 보다 추상화되었다. 상술한 (6)-(7)과 (8)-(10)에서 보이는 목적어의 적용 대상의 확장은 모두 일종의 은유에 의한 범주 확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조동사 ‘欲’의 성립과 분화

용언성 목적어를 취하는 ‘欲’ 가운데 상당수는 그 의미가 이전에 비해 다소 변화된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바로 (11)-(12)과 같이 ‘…하려고 한다(想要)’로

풀이되는 의지류 양상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欲’을 [바람]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배제하고 [의지]류 조동사와 같은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기능의 분화는 서주시기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²⁾ 다만 조동사와 일반동사의 구분 기준과 조동사 나타내는 양상의미의 분류 체계에 있어서 학자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盧卓君(1996)은 (8)-(10)의 목적어는 모두 용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언적 특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사 ‘欲’을 조동사가 아닌 일반동사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11)-(12)의 ‘欲’ 뒤에는 동목구가 출현하여 한 문장에서 같은 시간에 발생한 두 개의 동사를 포함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에 근거하여 동목구의 동사를 ‘주요동사(主要動詞)’로, ‘欲’은 ‘부차적인 동사(次要動詞)’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바로 이러한 ‘欲’을 주관적 계획이나 요구를 나타내는 ‘반허화(半虛化)된 의지류 조동사’로 주한 것이다.

(11) 顏淵死。門人欲厚葬之。子曰：“不可。”(《論語·先進》)

안연이 죽었다. 제자들이 그를 후하게 장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공자가 말했다. “불가하다.”

(12) 今王公大人欲王天下。(《墨子·尚賢中》)

오늘날 왕공대인들은 천하를 다스리고자 한다. (盧卓君 1996)

李佐豊(1994:120-121)은 동사 ‘欲’은 대체로 ‘주관적인 바람(主觀意願)’을 나타내는데, (13)과 같이 목적어가 술어성 성분인 경우에는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함’ 즉 동작주의 ‘하고자 하는 바(意欲)’가 무엇인지 나타내고, (14)와 같이 목적어가 주술(主謂) 또는 주지술(主之謂) 구조인 경우에는 ‘상대가 어떤 일을 해 주기를 희망함’ 또는 ‘어떠한 상황의 출현을 기대함’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www.kci.go.kr

2) 《尚書·益稷》에 “子欲觀古人之象。(내가 옛사람의 복장의 규례를 보이고자 하노라.)”라는 문장이 있다.

白曉紅(1997)은 동사 ‘欲’의 의미를 크게 셋으로 나눴다. (7)과 같이 목적어가 체언인 경우는 ‘얻기를 바라다(想要得到)’, (14)과 같이 목적어가 주술구인 경우는 ‘희망하다(希望)’를 나타내지만 (15)과 같이 동사성 목적어인 경우에는 화자 또는 주어 ‘스스로 어떤 일을 하기를 바람(自己愿意做某事)’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보다 허화된 ‘...하고자 한다(想, 想要)’ 의미의 조동사로 본 것이다.

(13) 陽虎欲去三桓.(《左傳·定公八年》)

양호는 삼환을 제거하려 합니다.

(14) 然而天何欲何惡者也? 天必欲人之相愛相利, 而不欲人之相惡相賊也.(《墨子·法儀》)

그렇다면 하늘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하늘은 반드시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을 원하며,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는 것은 원치 않는다.

(15) 孔子下, 欲與之言.(《論語·微子》)

공자께서 내려와 그와 이야기 하려고 하였다.

盧卓君(1996), 李佐豐(1994: 120-121), 白曉紅(1997) 등은 동사 ‘欲’의 목적어가 명사, 명사구 혹은 주술구인 경우 모두 ‘바라다’, ‘원하다’를 나타내는 동사로 처리하였다. 반면 목적어가 동사구인 경우는 모두 의지류 동사 혹은 조동사로 처리하였다. 盧卓君(1996)은 (11), (12)와 같이 목적어가 동명구조인 경우를 모두 의지류 조동사로 처리하였으며, 李佐豐(1994:120-121)과 白曉紅(1997)은 (13), (15)과 같이 목적어가 동사성을 갖는 경우 모두 의지류 양상표현으로 처리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欲’의 의지류 양상의미의 성립 여부를 문맥이나 궁기하는 성분들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목적어의 문법적 성질만을 기준으로 판별했다는 것이다.

姚振武(2003)은 《晏子春秋》에 출현한 ‘欲’의 의미를 비교적 관련성이 높은 ‘愿’과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분류방법을 제시하였다. ‘愿’은 동작주의 ‘주관적 바람’을 나타내는데 ‘바람’의 실현에는 통상 교섭 대상(경험자, 수혜자, 피동주)과의 호응을 필요로 한다. (16)에서는 경험자 ‘군(君)’, (17)에서는 피동주

‘군주(君子)’의 호응이 요구된다. 반면 ‘欲’의 ‘바람’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18)와 같은 ‘欲₁’은 동작주가 독립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제나라를 치는 일)를 하는 것으로 어떠한 교섭대상들의 호응도 필요하지 않지만, (19)와 같은 ‘欲₂’는 ‘愿’과 동일하게 동작주의 행위에 상대(나라)의 호응이나 조화가 필요하다.

(16) 章愿君廢酒也。(《晏子春秋·內篇諫上第四》)

원컨대 군께서는 술을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17) 騫，周室之賤史也。不量其不肖，愿事君子。(《晏子春秋·內篇問下第三十》)

저는 주나라의 천한 벼슬아치입니다. 스스로 불초한 것을 헤아리지 못하오나 원컨대 군자인 그대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18) 晉平公欲伐齊，使范昭往觀焉。(《晏子春秋·內篇雜上第十六》)

진평공이 제나라를 치려고 범소를 사자로 보내 정보를 살펴보고 오게 하였다.

(19) 三君皆欲其國之安，是以嬰得順也。(《晏子春秋·外篇第八第三》)

세 임금은 모두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랐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순탄할 수 있었습니다.

본고는 동사 혹은 조동사 ‘欲’의 의미를 크게 [바람]과 [의지] 두 계열로 나누는 학자들의 견해에 동의한다. [바람]은 ‘欲’은 본의인 ‘탐욕’, ‘욕망’에서 직접적으로 추론된 것으로 기본 의미는 ‘바라다’, ‘원하다’이다. 본고는 [바람]의 ‘欲’은 ‘NP1+V_欲+NP2’와 ‘NP1+V_欲+NP2+VP’ 두 구조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에서 목적어인 ‘NP2’와 ‘NP2+VP’는 ‘바라다’, ‘원하다’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주술구조인 ‘NP2+VP’ 역시 문장 전체를 두고 보면 지칭화된 체언적 성분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NP+V_欲+X’의 ‘X’가 명사, 명사구, 주술구인 경우를 모두 ‘欲’을 [바람] 의미의 일반동사로 처리하는 방식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는 ‘欲’의 [의지] 의미를 전형적인 양상 의미 중 하나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의지]를 나타내며 ‘NP+Aux_欲+VP’ 구조에 출현하는 ‘欲’을 모두 조동사

로 처리하였다. 이때 ‘欲’ 뒤에 출현하는 VP는 문장 전체에서 주요동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盧卓君(1996), 白曉紅(1997) 등과 같이 ‘NP+欲+X’의 ‘X’가 동사구인 경우의 ‘欲’를 모두 일률적으로 [의지]로 처리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표층구조에서 동일하게 ‘NP+欲+VP’ 형식을 이루더라도 만약 VP가 지칭화되어 추상적 개념을 가리킨다면 이는 사실상 ‘NP+V_欲+NP’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姚振武(2003) 제시한 경험자, 수혜자, 피동주 등 이른바 교섭 대상의 호응 여부로 [의지] 여부를 판별하려는 시도는 기존의 방법보다는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7)이나 (19)와 같이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호응이 있어야만 성사될 수 있는 일은 단지 동작주의 의지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호응 대상의 유무를 [의지] 판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姚振武 스스로도 밝힌 바와 같이 (20)-(22)와 같이 애초에 교섭 대상이 문장에 출현하지 않아 결국 문맥에 의존하여 [의지] 여부를 판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0) 今范昭人臣也，而欲舞天子之樂，臣故不爲也。(《晏子春秋·內篇雜上第十六》)

지금 범소는 남의 신하이면서 천자의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21) 君之言過矣! 群臣皆欲去禮以事君，嬰恐君子之不欲也。(《晏子春秋·外篇第七第一》)

임금의 말씀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예를 저버리고 임금을 섬기기를 바라옵니다. 저는 임금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실까 걱정됩니다.

(22) 寡人今欲從夫子而善齊國之政，可乎?(《晏子春秋·內篇問上第六》)

과인이 지금부터 선생의 의견을 따라 제나라 정치를 잘 이끌기를 바라는데 괜찮겠습니까?

본고는 이때 VP의 [통제(可控)] 여부가 중요한 판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NP+欲+VP’에서 ‘欲’이 의지류 조동사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동작

주에게 VP가 통제할 수 있는 이른바 [+통제]의 행위가 되어야만 한다. 통제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의지'는 본질적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단지 그 행위에 대한 '바람'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의 범소(范昭)가 천자의 춤을 추는(舞天子之樂) 행위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의도한 당시에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欲'은 의지류 조동사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21)의 예를 저버리고 임금을 섬기는(去禮以事君) 것은 통상 신하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므로 '欲'은 '바람'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22)의 경우 지위가 높은 군주에게 정치를 이끄는 방식은 대개 통제할 수 있는 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선생에게 동의를 구하는 질문("可乎?")으로부터 [-통제]의 행위임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欲'은 '바람'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문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欲'의 의미를 판별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조동사 '欲'의 도의양상 의미가 선진시기에 이미 출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李明(2016: 41-42)은 (23)와 같이 '欲'이 '마땅히(應當)' 의미를 나타내는 용례가 《論語》에 이미 출현하였으며, 이는 '欲'의 '바람(意願)' 의미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李明은 張雙棣等(1993: 423)을 인용하여 《呂氏春秋》에 동일한 용례가 총 19회 출현했다고 밝혔다. 殷國光(2008: 154-155)은 선진시기 '欲'의 의미를 '하려고 하다(想要)', '마땅히(應該)', '언기를 바라다(想得到)' 등 세 종류로 나누고 앞의 둘을 조동사로 처리하였는데 그중 '마땅히(應該)'가 바로 도의양상에 해당된다.

(23) 子曰：“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論語·微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말하는 데 있어서는 더듬거리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민첩해야 한다(하기를 바란다).”

(24) 故晦欲廣以平, 明欲小以清。(《呂氏春秋·辯土》)

그러므로 밝두둑은 넓고 평평해야 하고(기를 바라고), 밝도랑은 좁고 깊어야 한다(좁고 깊기를 바란다).

(25) 故凡兵勢險阻, 欲其便也。(《呂氏春秋·簡選》)

그러므로 무릇 군대의 형세가 험난함에 처하게 되면 그것이 편안해야 한다(그 편안함을 바란다).

만면 盧卓君(1996), 楊世勤(2007) 등은 위진남북조 시기에 이르러서야 (26), (27)과 같은 '마땅히'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欲'가 도의 류로 쓰인 용례는 특히 《齊民要術》에서 많이 발견된다. (27)은 전형적인 도의양상 표현인 '宜'와 함께 대(對)를 이루며 사용되고 있다.

(26) 秋耕欲深, 春夏欲淺.(《齊民要術·耕田》)

가을에 밭을 갈 때는 깊게 해야 하고, 봄과 여름에는 얇게 해야 한다.

(27) 凡春種欲深, 宜曳重撻.(《齊民要術·種穀》)

무릇 봄에 파종할 때는 깊게 해야 하고, 무거운 달(撻)을 끌어야 한다.

巫雪茹(2018:391-394)은 (23)-(25)와 같은 '欲'을 모두 '바라다' 의미의 동사로 처리하고 후속 동사구를 동사 '欲'의 주술구 목적어로 분석할 것을 주장하였다. 巫雪茹는 해당 문장들을 모두 'T, (Subj) + 欲 + VP' 형식의 화제문(主題句)으로 분석하였다. 즉 '欲' 앞의 NP는 문장 전체의 화제(T)에 해당되고 평언 부분의 '欲'은 [바라다] 의미의 동사로 그 뒤의 VP는 동사 '欲'의 목적어로 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형에는 '우리(我們)'와 같은 범칭(泛指) 주어와 함축되어 있으며, 이는 '欲'이 나타내는 '바라다'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24)에서 '밭두둑(晦)'은 문장의 화제가 되며 이에 대하여 범칭 주어는 '넓고 평평함(廣以平)'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25)에서는 '군대의 형세가 험난함에 처함'이 화제가 되며 '그 편안함(其便)'이 바라는 바가 된다.

본고는 巫雪茹의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중고중국어 시기에 이르면 바로 이와 같은 문형에서 '欲'의 도의양상 의미가 획득되었다고 판단한다. 특정 화제에 대해 범칭 주어가 바라고 있는 바는 대개 화자에게 보편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에 해당된다. 환언하면 이러한 문형에 출현한 '바라다' 의미의 동사 '欲'에는 '필요성'이 이미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24)에서 '밭두둑(晦)'에 있어 '넓고 평평함'과 (25)의 '군대의 형세가 험난함에 처함'에 있어 '그 편안함'은 독자적 해석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바에 해당되지만 화자가 보편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편적 '필요성'은 도의양상의 가장 기본적인 기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欲'의 도의양상 의미의 획득 과정은 쉽게 설명될 수 있다. 다만 본고는 《論語》의 예는 아직 [바람]을 나타낸다고 보며, 《呂氏春秋》의 예들은 이미 [필요]로 발전하는 과도 단계에 진입하여 [바람]과 [필요]의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欲'의 도의양상 용법이 비교적 성숙한 시기의 문헌인 《齊民要術》에서도 도의류 '欲'은 대부분 위와 같은 'T, (Subj)欲VP' 문형에서 출현한다. 예컨대 (26), (27)에서와 같이 도의류 '欲'은 대부분 화제로 분석될 만한 명사구나 절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欲'을 포함한 평언 부분이 화제에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필요한 일을 설명하는 문맥에서 출현한다. 이를 통해 '欲' 도의양상 기능과 'T, (Subj)欲VP' 문형 간의 연관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본 장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선진시기 '바라다' 의미의 동사 '欲'은 'NP+V_欲+VP', 'NP1+V_欲+NP2+VP'에 모두 출현할 수 있었다. 그중 'NP+V_欲+VP'의 VP가 [+통제]의 자질을 갖는 조건에서 'NP+V_欲+VP' 구조는 'NP+Aux_欲+VP' 구조로 재분석되고, 동사 '欲'은 의지류 조동사로 발전한다. 따라서 'NP+欲+VP' 구조에서 VP가 [+통제]인 경우 '欲'은 의지류 조동사로, VP가 [-통제]인 경우는 '바라다' 의미로 일반동사로 판별할 수 있다. 선진시기 '바라다' 의미의 동사 '欲'은 'T, (Subj)欲VP'의 환경에서 VP에 대한 '필요성'을 함축하게 되고, 중고중국어 시기에 이르러 [필요]의 도의양상 의미를 획득한다. 따라서 중고중국어 시기 'T, (Subj)欲VP'의 맥락에 출현한 '欲'은 도의양상 [필요]로 판별할 수 있다.

4. 양상과 미래시제의 관계

www.kci.go.kr

언어유형론 연구에 의하면 범언어적으로 미래와 관련된 표현들은 양상 의미

를 함께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미래의 사태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언급에는 본질적으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통시적으로도 다수의 미래시제 표지가 양상 표현에서 기원하기도 하였으며 반대로 미래시제 표지에서 양상 표현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미래를 여러 양상 의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의미범주 즉 사실상 양상의 일종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Bybee et al.(1994:280)는 유형론적 연구를 통해 미래는 '의도(intention)'와 '예측(prediction)' 두 가지 의미 요소에 의해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미래가 단순한 시간 범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주 지향적 양상이라 할 수 있는 '의도'와 인식 양상이라 할 수 있는 '예측'과 유사하며 여기에 단지 중요한 시간에 관한 정보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아 張萬禾·石毓智(2008)는 현대중국어에서 조동사와 미래시제 표지로 함께 쓰이는 '要'의 기능을 분류함에 있어 '의도'와 '예측'을 판별 기준으로 삼아 미래를 다음 세 종류로 나누었다. (28)과 같이 [-의도], [+예측]의 특징을 가지면 단순미래시제 표지로, (29)와 같이 [+의도], [+예측]의 경우 복합미래시제 표지로, (30)과 같이 [+의도], [-예측]인 경우는 [의도]의 양상 의미만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각각 처리하였다. 사실상 [예측]의 여부가 미래시제 표지의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 셈이다.

(28) 你必須馬上走, 我有預感, 今晚要出事。(《侯宝林微笑着告別人生》(侯珍))

너는 반드시 지금 바로 가야 된다. 나는 오늘 밤 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구나.

(29) 有一天, 你說過, 要把我們的事情告訴老爺的。(《雷雨》(曹禺))

어느 날 너는 우리의 일을 어르신에게 아뢴 것이라 말한 적이 있다.

(30) 你告訴他, 工人代表魯大海要見他。(《雷雨》(曹禺))

당신은 그에게 노동자 대표 루다하이(魯大海)가 보려고 한다고 알려시오.

(張萬禾·石毓智 2008)

하지만 [예측]은 확인할 수 없는 미래의 사태에 대하여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인식양상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Palmer(1979: 111-120), Coates(1983: 169)는 전통적으로 미래시제 표지로 여겨지는 영어 'will'을 'may'와 유사한 인식류 양상표현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必', '當'과 같은 고대중국어 인식류 양상표현들도 미래 사태에 사용될 경우 단순히 미래시제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인식양상을 나타내는지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하지만 Comrie(1985:43-48)는 미래시제와 인식양상은 개념상 명확히 구별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it will rain tomorrow"의 사실 여부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검증할 수 있는 예측을 나타내지만, "it may rain tomorrow"는 가능성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검증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미래시제와 인식양상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다.

줄고(2016)에서는 彭利貞(2007:140)이 제기한 미래사건에 사용된 '要'가 '將'으로 교체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의도]가 배제된 [예측]이라 하더라도 단순미래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 [필연]과 같은 인식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면 (31)의 '要'는 단순히 '미래'라는 시간성만을 나타낸다면, (32)의 '要'는 미래의 사건인 '오늘 밤 일이 나다(今晚出事)'라는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 즉 인식양상을 나타낸다. 미래의 판별에 있어 [의도], [예측]과 더불어 [인식] 여부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31) 明年, 我要去外地工作, 不得不離開家.

내년에 나는 일을 하러 외지로 간다.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다.

(32) 坏了, 今晚要出事. 咱們得馬上走.

큰일 났다. 오늘 밤 무슨 일이 날 것이다. 우리는 바로 가야 해.

(魯曉琨 2004: 173, 175)

巫雪如(2014)는 인식양상과 미래시제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巫雪如是 고대중국어 '必'은 인식양상만을 나타내며 '將'은 미래시제만을 나타

낸다고 보았는데, '必'은 (33)과 같이 현재의 사태에도 쓰이기도 하고(e1), (34)과 같이 미래의 사태에 쓰여(e2) 화자의 인식적 판단을 나타내고, '將'은 (35)과 같이 화자의 추론에 근거하여 미래 사태에 대한 예측을 나타내기도 하고(f1), (36)처럼 화자의 추론과 무관하게 단순히 후시성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f2) 화자의 추론은 문맥이 결정하는 것으로 '將'은 단순히 미래라는 시간적 의미만 나타낸다고 하였다. 미래에 대한 인식적 판단과 순수한 미래시제를 매우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처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호	의미	의미자질
e1	인식양상-현재 사태에 대한 추정	[+진리치 추정][-예측][-미래시간 설정] ³⁾
e2	인식양상-미래 사태에 대한 추정	[+진리치 추정][+(예측)][-미래시간 설정]
f1	미래시제-예측 성분을 포함	[-진리치 추정][+예측(추론)][+미래시간 설정]
f2	미래시제-예측 성분을 불포함	[-진리치 추정][-예측][+미래시간 설정]

<표1> 巫雪如(2014)의 미래시제 관련 의미 분류

- (33) 夫天之見妖也，以罰有罪也。我必有罪，故天以此罰我也。(《呂氏春秋·制樂》)
하늘이 괴이함을 보인 것은 죄가 있는 자를 벌하려는 것이다. 나는 분명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이것(지진)으로 나를 벌하는 것이다.
- (34) 虢射曰：“期年狄必至，示之弱矣。”(《左傳·僖公八年》)
虢射이 말하였다. 1년 안에狄이 반드시 쳐들어 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약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 (35) 使解揚如宋，使無降楚。曰：“晉師悉起，將至矣。”(《左傳·宣公十五年》)
진 경공이 해양解揚을 송나라로 보내 초나라에 항복하지 않게 하고, “진나라 군사들이 모두 일어나 곧 도착할 것이다.”라고 말하게 했다.
- (36) 賓將出，武子賦彤弓。(《左傳·襄公八年》)
손님인 宣子가 나가려 할 때에 계무자는 彤弓의 시를 불러 진군의 패업을 칭송하는 뜻을 나타냈다.

3) 巫雪如(2014)의 '진리치 추정(眞值推斷)'은 인식류 조동사들이 갖는 [가능], [필연] 등의 인식적 판단의 기능을 가리키며, '미래시간 설정(未來時定位)'은 시간부사 '將' 같이 동작이나 사건의 시간(E)을 참조점(R) 이후로 설정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물론 문헌의 해석 과정에 있어서 미래 사태에 대한 인식적 판단과 미래시제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종종 기술적인 난점이 있을 수 있다. 양자 모두 미래 사태에 대한 모종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대중국어의 ‘當’은 미래시제 표지로 쓰이면서도 인식양상도 나타낼 수 있어서, <표1>의 e1, e2, f1, f2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 만약 (37), (38)과 같이 ‘當’이 미래의 사태에 쓰인다면 그것이 e2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f1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巫雪如(2014)도 이를 인정하여 모두 중의적 표현으로 분류하였으나, 논리적으로 여전히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7) 兵箚晉陽三年矣, 旦暮當拔之而饗其利, 乃有他心?(《戰國策·趙策一》)
군대가 晉陽을 포위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그곳을 점령하여 이익을 취할 것인데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38) 孫子度其行, 暮當至馬陵.(《史記·孫子吳起列傳》)
孫자가 그 여정을 헤아리니 저녁이면 馬陵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했다.
(巫雪如 2014)

본고는 巫雪如(2014)의 미래 사태에 대한 인식양상과 미래시제가 논리적으로 구분되고 ‘의도’와 ‘예측’이 모두 배제된 ‘확정적 미래’가 있다는 관점과 張萬禾·石毓智(2008) 등이 제시한 ‘의도’와 ‘예측’의 개념이 미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견해에 모두 동의한다. 이 두 견해들을 종합하면 미래시제는 [의도], [예측], [후시]의 여부에 따라 의도류, 예측류, 확정류 등 세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⁴⁾ 세 종류의 미래시제와 이들과 관련성이 높은 [인식], [의지] 등의 양상의미와의 관계를 아래의 <표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⁵⁾

4) 미래시제에 대한 본고의 분류 방법은 嚴焄(2018:8-9)의 체계와 일맥상통하다. 嚴焄(2018:8-9)은 Dahl(2000:310-313)이 의도류, 예측류, 확정류, 계획류 등으로 구분한 미래법주의 4분류 체계에서 계획류를 의도류로 통합한 3분류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5) 여기에서 ‘후시’는 巫雪如(2014)의 ‘미래시간 설정(未來時定位)’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상대미래의 후시성(posteriority)과 같은 개념이다.

기호	구분	의도意圖	예측預期	후시後時	인식認知
f1	의도류 미래	+	+	+	-
f2	예측류 미래	-	+	+	-
f3	확정류 미래	-	-	+	-
e1	인식양상[필연] (과거/현재)	-	-	-	+
e2	인식양상[필연] (미래)	-	+	-	+
y1	동력양상[의지]	+	-	-	-

<표2> 본고의 미래시제 관련 의미 분류

<표2>에서 f1, f2, f3은 미래시제 표지이며, e1, e2, y1은 양상 표지이다. f1과 f2는 모두 ‘예측’의 자질을 필수적으로 갖는데, 이중 f1은 張萬禾·石毓智(2008)의 복합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측’ 이외에 동작주의 ‘의도’를 함께 포함한다. f3은 ‘의도’와 ‘예측’이 모두 배제되어 이미 확정적인 미래의 사태에 대하여 단순히 시간적 특성만을 나타내는 경우를 나타낸다. e1, e2는 모두 인식양상으로 전자는 과거나 현재의 사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며, 후자는 미래 사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 y1은 단순히 동작주의 의지만을 나타내는 양상의미를 가리킨다. 본고는 아래에서 이상의 논의에서 도출된 분류 기준을 토대로 상고·중고중국어 시기 미래시제표지로 쓰인 ‘欲’의 사용 상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5. 미래시제표지 ‘欲’의 성립과 분화

[바람]이나 [의도]는 사실 ‘미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의 바라는 바나 의도하는 바는 대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劉淇는 《助字辨略》에서 “바라다(欲)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원하지만 아직 언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또한 장래의 일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⁶⁾ 선진시기 의지류 조동사로 쓰인 ‘欲’을 3장에서 언급한 [의도], [예

측)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의도]와 [+예측]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복합 미래시제표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欲’은 모두 동작주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가능한 모종에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의지를 통해 그것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실현할 것이라는 예측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는 양상의 기준에서 보면 동작주의 주관적 의지를 반영한 동력양상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미래시제의 기준에서 보면 <표2>의 ‘의도류 미래시제 [f1]’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한대 이후부터 동작주의 ‘의도’를 완전히 배제하고 단순히 사건의 미래성만을 나타내는 ‘欲’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太田辰夫(1991:31), 王力(1989: 251), 柳士鎮(1992), 盧卓君(1996), 楊伯峻·何樂士(2001:239), 王統尚(2009) 등 다수의 학자들은 이미 ‘欲’의 ‘미래(將來)’ 의미에 대해 긍정한다.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欲’이 최초로 이러한 ‘단순 미래시제’를 나타내게 된 것은 대략 서한 말에서 동한 시기 사이로 추정된다. 물론 한대부터 이와 같은 ‘欲’의 사용 빈도가 높았던 것은 아니며 단지 몇몇 개별적인 사례들만이 보일 뿐이다.

아래의 (39)-(42)는 모두 한대에 단순히 미래시제만을 나타내는 ‘欲’의 용례들이다. 앞에서 살펴본 의지류 조동사의 용례들과 비교하면, 해당 문장들의 ‘欲’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나타내고 있다. (39)에서 ‘궁전이 무너지다(殿壞者)’는 현실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가정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그 실현 여부는 동작주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자는 단지 자신의 판단력에 근거하여 그 상황이 미래에 실현될 것을 단순히 예측하고 있을 뿐이다. (40)의 ‘죽다(死)’와 (41)의 ‘무너지다(頽)’도 본질적으로 동작주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欲’은 ‘의도’가 배제된 단순한 예측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하문의 문맥에서 VP가 나타내는 상황이 동작주가 통제할 수 없을 때 ‘欲’은 단순히 미래만 나타내는 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앞의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VP의

6) 《助字辨略》：“凡云欲者，皆愿之而未得，故又得爲將也。”

[+통제]는 [의도] 성립의 전제가 된다. 따라서 VP가 [-통제]인 조건에서 '欲'의 [+의도]의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예측]의 자질만 남아 '欲'은 이른바 '예측류 미래시제표지[f2]'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42)의 상황은 앞의 셋과 다소 다르다. VP '날이 밝다(曙)'의 상황 역시 (39)-(41)과 마찬가지로 동작주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동작주의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날이 밝는 상황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는 확정된 미래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이와 같은 문맥에 출현한 '欲'은 '의도'와 '예측'이 모두 배제되어 단순히 미래라는 시간성만 나타내는 '확정류 미래시제[f3]'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비록 운문이 라는 문체적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용례가 한대에 이미 출현했다는 점에서 '欲'의 '확정류 미래시제[f3]' 기능은 '예측류 미래시제[f2]'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획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9) 引壘而佩之, 左右百官莫從. 上殿, 殿欲壞者三.(《史記·李斯列傳》)
 옥새를 꺼내어 찾지만 좌우의 백관 가운데 따르는 자 없고, 궁전에 올랐더니 궁전이 세 번이나 무너지려고 하였다.
- (40) 侏儒飽欲死, 臣朔飢欲死.(《漢書·東方朔傳》)
 侏儒는 배가 불러 죽을 것이며, 신 朔은 배가 고파 죽을 것입니다.
- (41) 魯城門久朽欲頓, 孔子過之, 趨而疾行.(《論衡·幸偶篇》)
 魯의 성문이 오래되어 썩어 무너지려고 할 때, 공자께서 지나가셨는데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셨다.
- (42) 雞鳴外欲曙, 新婦起嚴妝.(《孔雀東南飛》)
 닭 울고 밖은 날이 밝으려 하니 신부는 일어나 단정하게 몸치장을 한다.

(43)-(47) 위진시기 이후의 용례이다. 본고의 기준에 따르면 (43)은 '예측류 미래시제'를 나타내고 (46)-(47)은 '확정류 미래시제'를 나타낸다. 염죽균(2018:23)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측류'와 '확정류'는 구분하는 것은 백과사전식 정보와 문맥적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확정류'는 (46)-(47)과 같이 복문에서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는 선행절에 자주 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 王統尙(2009)에 따르면 이처럼 ‘의도’가 배제된 순수한 미래시제표지 ‘欲’은 위진남북조 시기에 이르면 점차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당송대에 이르면 사용 범위와 빈도가 보다 확대되어 가장 보편적인 미래시제표지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리고 원대 이후부터 사용이 점차 줄어들어 대략 명대를 분기점으로 본래 미래시제표지의 기능을 대부분 ‘將’이나 ‘待’ 등에 내어주며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 (43) 佗脈之曰，府君胃中有蟲，欲成內疽，腥物所爲也。(《三國志·魏書·華佗傳》)
화타가 맥을 짚고 말하였다. 부군[府君]께서 위장에 벌레가 있어 내저[內疽, 안에서 생기는 부스럼]를 이룰 것입니다. 이는 비린 음식이 그렇게 한 까닭입니다.
- (44) 吾嘗患齒，搖動欲落，飲食熱冷，皆苦疼痛。(《顏氏家訓·養生》)
나는 일찍이 이를 앓은 적이 있는데 이가 흔들려 빠지려 했다. 마시거나 먹거나 더운 것이나 차가운 것이나 모두 시리고 아파서 고통을 하였다.
- (45) 行欲至宛市，定伯便擔鬼著肩上，急持之。(《搜神記·第十三卷》)
행하는 길이 宛市에 이르려고 하자, 宋定伯은 곧장 귀신을 등에 업고는 급하게 그를 단단히 잡았다.
- (46) 殷浩始作揚州，劉尹行，日小欲晚，便使左右取袱。(《世說新語·政事》)
殷浩가 처음 양주자사를 하였을 때 劉尹이 외출을 했는데, 날이 조금 어두워지려 하자 劉尹은 좌우의 부하에게 보자기를 준비하게 하였다.
- (47) 唾欲出口，舉脚先蹠，望得汝意。(《百喻經57》)
침이 막 입에서 나오려 할 때 다리를 들고 먼저 밟아 장자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 (48) 時欲黃昏，天色忽陰。(《入唐求法巡禮行記·卷三》)
때는 황혼이 되려고 하는데 하늘빛이 갑자기 음울해졌다.

초기의 의지류 조동사 ‘欲’과 현대 이후 성립된 ‘예측류’, ‘확정류’ 미래시제표지 ‘欲’의 차이는 함께 출현하는 주어나 술어의 특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의지류 조동사 ‘欲’과 공기하는 주어는 (20) ‘범소(范昭)’, (21) ‘여러 신하(群臣)’, (22) ‘과인(寡人)’ 등과 같이 대부분 생명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주어는 ‘의도’의 감정을 지닐 수 있는 [+유정(animate)]이나 [+사람]

의 자질을 갖는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VP는 [+통제]의 특징을 가지며 대개 동작주 입장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동작이나 행위를 가리킨다.

반면 '예측류' 또는 '확정류' 미래시제표지 '欲'과 공기하는 주어는 (39) '궁전(殿)', (41) '노나라 성문(魯城門)', (42) '바깥(外)', (45) '행하는 길(行)', (46) '날(日)', (47) '침(睡)', (48) '때(時)' 등과 같이 [-유정]이나 [-사람]의 자질을 갖는 무생물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어들은 의인화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후속 VP가 어떠한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더라도 원천적으로 그것을 통제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물론 (40)의 '주우(侏儒)'나 '동방삭(朔)'과 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용례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欲' 뒤의 VP는 '죽다(死)'와 같이 동작주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낸다. 두 경우 모두 VP가 [-통제]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欲'의 [+의도] 자질도 자연스럽게 상실하게 된다.

6.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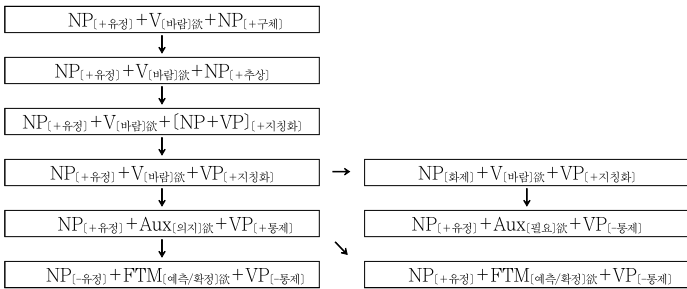
본 논문은 상고·중고시기 동사, 조동사, 미래시제표지로 쓰인 다기능어 '欲'의 사용 현황을 고찰하고 의미 분화의 경로와 그 기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래는 논의의 결과이다.

선진시기 동사 '欲'은 'NP1+V_欲+NP2' 구조에 쓰여 동작주가 획득하기 바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목적어로 취하였다. 이후 동사 '欲'은 은유적 전이에 의해 기능이 확장되어 추상적 개념의 명사구를 목적어로 취하기도 하고 지칭화된 동사구나 주술구를 목적어로 취하여 'NP+V_欲+VP', 'NP1+V_欲+NP2+VP'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구성하게 된다. 목적어가 지칭하는 바가 추상화됨에 따라 동사 '欲'의 의미도 '...를 얻기를 바라다'에서 '...에 도달하기를 바라다'로 변화하는데 이는 문법화 이론의 일반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NP+V_欲+VP'의 VP가 [+통제]의 자질을 갖는 환경에서 'NP+V_欲+VP' 구

조는 'NP+Aux_欲+VP' 구조로 재분석된다. 이때 '바라다' 의미의 동사 '欲'은 함축과 추론에 의해 동작주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지류 조동사로 문법화된다. '바라다' 의미의 동사 '欲'은 위진남북조 시기 'T, (Subj)+欲+VP' 구조의 화제문 환경에 출현하여 범칭 주어의 '필요성'을 추론하여 [필요]를 나타내는 도의양상 조동사로 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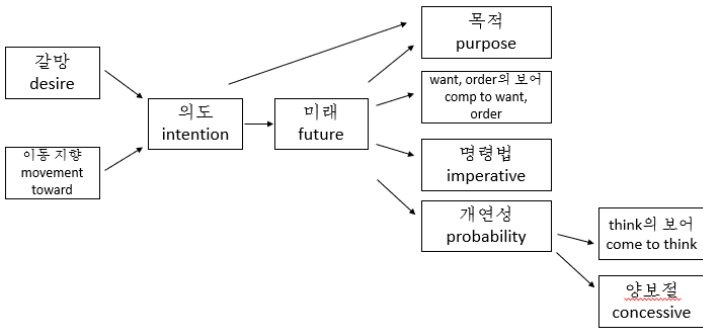
의지류 조동사 '欲'은 [의도]와 함께 [예측]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상 '의도류 미래시제표지'로 볼 수 있다. VP가 [-통제]의 특징을 갖는 환경에서 '欲'의 [+의도] 자질이 억제되어 [-의도], [+예측]의 '예측류 미래시제'와 [-의도], [-예측]의 '확정류 미래시제'로 발전한다. 즉 의지류 조동사 '欲'은 단순 미래시제표지(FTM)로 발전하여 'NP+Aux_欲+VP' 구조가 'NP+FTM_欲+VP'로 재분석된다. 'NP+FTM_欲+VP'의 NP는 대부분 [-무정], [-사람]의 특징을 가지며, 문장 전체의 맥락은 대부분 객관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이다. 아래의 <도식1>은 '欲'이 미래시제표지로 의미 기능이 분화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도식1> '欲'의 의미 변천 과정

'바라다' 의미의 동사 '欲'은 전형적인 갈망(desire)류 동사로 볼 수 있다. Bybee et al.(1994:176-242)은 범언어적 연구를 통해 갈망 관련 어원어가 미래시제표지로 발전하는 경로를 <도식2>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바라다' 의미의 동사 '欲'이 미래시제표지로 발전하는 분화 과정은 대체로 이 경로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하지만 Bybee et al.(1994)나 van der Auwera et al.(1998)이 제시한 어떠한 경로에서도 '의도'에서 '의무', '필요' 등의 도의양상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欲'의 도의양상 의미의 획득이 언어 발전의 보편적 법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欲'의 개별적 사용 환경에 의해 비롯된 비교적 특수한 결과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식2> Bybee et al.(1994)의 갈망과 이동 지향으로부터의 발전 경로

< 參考文獻 >

- 박성하(2015), <양태조동사 '能'의 하위분류 및 주어와의 공기특성 분석>, 《중어중문학》 61.
- _____(2018), <현대중국어 '要'의 양태기능과 문법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염죽균(2018), <중국어 '要'와 '會'의 미래시제 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순일(2015), <고대중국어 '當'의 문법화 小考 - 미래시표지 용법을 중심으로 >, 《중국문화연구》 31.
- 최재영(2008), <중국어 조동사 연구>, 《중국연구》 43.

7) Bybee et al.(1994)의 체계에서 '예측'은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 요소로 '의도'에서 발전한 것이다.

- _____ (2012), <明清시기 의지류 조동사 연구>, 《중국학연구》 61.
- _____ · 안연진(2010), <《老乞大》 4종 판본 의지류 조동사 考察>, 《중국연구》 49.
- 白曉紅(1997), <先秦漢語助動詞系統的形成>, 《語言學論叢》第七輯, 北京: 語文出版社, 211-229.
- 段業輝(2002), 《中古漢語助動詞研究》, 南京: 南京師範大學出版社.
- 黃天樹(2008), <殷墟甲骨文助動詞補說>, 《古漢語研究》 4期.
- 李 明(2016), 《漢語助動詞的歷史演變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 李佐豐(1994), 《文言實詞》, 北京: 語文出版社.
- 劉 利(2000), 《先秦漢語助動詞研究》,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 柳士鎮(1992), <魏晉南北朝期間的動詞時態表示法>, 胡竹安·楊耐思·蔣紹愚, 《近代漢語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71-282.
- 盧卓君(1996), <助動詞“欲”的發展軌跡>, 《武漢教育學院學報》 5期.
- 彭利貞(2007), 《現代漢語情態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石毓智·白解紅(2007), <將來時的概念結構及其詞彙來源>, 《外語教學與研究》 1期.
- 太田辰夫 著, 江藍生·白維國 譯(1991), 《漢語史通考》, 重慶: 重慶出版社.
- 王 力(1989), 《漢語語法史》, 北京: 商務印書館.
- 王統尚(2009), <漢語將來時標記的來源和語法化問題研究>, 武漢大學博士學位論文.
- 巫雪茹(2014), <上古漢至中古‘當’之情態語義與未來時發展重探>, 《台大中文學報》 46期.
- _____ (2018), 《先秦情態動詞研究》, 北京: 中西書局.
- 楊伯峻·何樂士(2001), 《古漢語語法及其發展》, 北京: 語文出版社.
- 楊世勤(2007), <古漢語助動詞研究綜述>, 《荷澤學院學報》 6期.
- 姚振武(2003), <《晏子春秋》的助動詞系統>, 《中國語文》 1期.
- 殷國光(2008), 《呂氏春秋詞類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 張雙棣·殷國光·陳濤(1993), 《呂氏春秋詞典》,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 張萬禾·石毓智(2008), <現代漢語將來時範疇>, 《漢語學習》 5期.
- 朱冠明(2008), 《《摩訶僧祇律》情態動詞研究》,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 Bernd Heine, Tania Kuteva. 2002.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ybee, Joan, Revere Perkins, and William Pagliuca.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ates, Jennifer. 1983. *The Semantics of the Modal Auxiliaries* London & Canberra: Croom Helm.
- Comrie, Bernard. 1985. *Ten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 Renzhi. 2004. "Modality in English and Chinese: a Typological Perspective". PhD, Antwerp.
- Lyons, J. 1977. *Semantic(V.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er, F. R. 1979. *Modality and the English modals*. London: Longman.
- Palmer, F. R. 1986. *Mood and Modality(1st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er, F. R. 2001. *Mood and Modality(2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augott & Dasher. 2002. *Regularity in Semantic Change*. La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der Auwera, J. and V. Plungian. 1998. "Modality's Semantic Map". *Linguistic Typology* 2: 79-124.

< Abstract >

The Evolution of Auxiliary Verbs Yu(欲) in Old and Middle Chinese

Yoon, Soonil

This paper analyzed the use of the multi-functional word 'yu(欲)' used as verb, auxiliary verb, future tense marker, etc., and discussed the path of meaning development and its mechanism.

First, the verb 'yu(欲)' in Pre-Chin Period was used in 'NP1+V_欲+NP2', indicating the meaning of 'desire'. The verb 'yu(欲)' has expanded its function to take the object of complex structures such as abstract nouns, verb phrases, and subject-predicate structures.

Second, when VP of 'NP+V_{yu(欲)}+VP' is [+control], the structure of 'NP+V_{yu(欲)}+VP' is re-analyzed as 'NP+Aux_{yu(欲)}+VP'. At this time, the verb 'yu(欲)' in the meaning of 'desire' is changed to 'volition' type auxiliary verb.

Third, the verb 'yu(欲)' in the meaning of 'desire' appears in the topic-comment sentence can infer the 'necessity' of VP. These 'yu(欲)' develop into auxiliary verbs that represent [necessity] during the period of The Six Dynasties.

Fourth, if the VP of 'NP+Aux_{yu(欲)}+VP' is [-control], the [+intention] feature of 'yu(欲)' is suppressed, and the meaning of 'yu(欲)' is developed into 'prediction' type future tense with [-intention], [+prediction], and 'schedule' type future tense with [-intention], [-prediction].

Key words: Old Chinese, Middle Chinese, Auxiliary Verb, Future Tense Marker, Yu(欲)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07. 31	2020. 08. 13 -08. 27	2020. 08. 21	2020. 08. 28	2020. 09. 30